

# 부모의 기독교 신앙과 권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차이

전요섭\* 이진영\*\*

## I. 서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사회 환경이며 가치관, 습관 등이 형성되는 곳으로 개인이 일생동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sup>1)</sup> 가정은 인간의 발달과 사회성 및 정서성을 포함한 성격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 인적 환경이며, 이러한 인적 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갖게 되는 양육태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장 어려운 인생의 전환점 중의 하나이며 계속적인 위기의 순간으로 갑자기 변하는 행동경험, 스트레스로 인한 자기회피와 열등의식이 강해 지는 때이고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불안정하며 의존적이다.<sup>2)</sup> 그러므로 성장과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발달과 정서적 특성, 사회적 성장 및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또한 사회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들은 부모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과되어 자녀에게 전달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sup>3)</sup>

\* 전요섭(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주임교수)

\*\*이진영(성결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전임연구원)

- 1) Edith Sdhaefffer, *What Is A Family?* 양은순 역, 「가정이란 무엇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20-21.
- 2)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전요섭, 황동현 공역, 「위기상담학」 (서울: 쿰란출판사, 1998), 264.
- 3) F. Philip Rice,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편역,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131.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건강한 분화를 이루려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스스로를 결정하고 확립하는 시기이다.<sup>4)</sup> 그러므로 사회적 역할,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새로 발견한 자기 등이 접근하고 통합되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없이 과열된 입시 경쟁에 밀려서 오직 대학입시에 혈안이 되어있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삶의 목적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없고 결과적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이다. 자신의 사명감이나 자아정체감 대신 시험점수가 정해주는 인생행로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좌절감과 불만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안정감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과 자아를 실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태도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며 소심하고, 비관적이며,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에 쉽게 빠져들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의 형성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유형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는데, 부모의 권위유형과 관련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기독교 신앙과 양육특성 중 가장 많이 논의되어온 D. Baumrind의 세 가지 권위 유형, 즉 ‘허용적,’ ‘독재적,’ 그리고 ‘신뢰적’인 유형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

4) 홍인중, “낮은 자존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제292호 (2001, 6): 67.

5) Josh McDowell, Bob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 상담 핸드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39-141.

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권위

#### 1) 부모권위의 개념

현대 가정 공동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 고도의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가족의 구조와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결속의 불안정을 가져왔고, 이혼이나 직업 또는 학업에 따른 별거로 인해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소형화의 증가는 가정을 위기로 내몰았다.<sup>6)</sup> 하지만 여전히 가정은 합법적인 혼인에 의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곳이며, 일용할 양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단위이며, 가족 구성원의 안식과 휴식처이며 개개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교육의 장이다.<sup>7)</sup> 가정은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해야 하는 교육적 책임이 부여된 곳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권위, 힘, 자애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부모가 훈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권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ἔξουσία(exousia)는 ‘존재로부터’라는 의미로 어떤 개인적인 힘, 성취, 혹은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개인의 ‘존재로부터’ 산출되는 영향력의 어떤 형태를 말한다. 즉 훌륭한 자녀 양육이란 부모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sup>8)</sup>

부모 권위는 자녀가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볼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된다. 부모 권위는 자녀가 깨닫지 못하는 사회의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부모의 힘의 부여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 및 창조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자녀

6) 김성은 편, 「기독교교육개론」(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94), 227.

7) 오인택 외 12인 편, 「기독교교육론」(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183.

8) Jack O. Balswick, Judith K. Balswick, *The Family*, 황성철 역, 「크리스천 가정」(서울: 두란노, 2003), 31-33, 135.

에게 의도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 권위는 자녀의 행동을 구속하는 규칙을 정하여 명령하는 힘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필수적인 개념이다.<sup>9)</sup> 그러므로 부모 권위는 부모가 내세우는 권력이나 강압적인 행동방식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를 권위 있게 인지하고 내면화하여, 부모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 권위는 자녀의 마음에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원칙이 있어야만 부모를 존중하여 자발적인 복종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sup>10)</sup>

## 2) 부모의 권위 유형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인간발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대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1971년 Diana Baumrind가 제시한 ‘허용적(permissive),’ 독재적(authoritarian),’ 그리고 ‘신뢰적(authoritative),’ 권위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허용적 권위

허용적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정도가 낮고 지지정도가 높은 권위유형으로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여 자율성을 고무하며, 자녀를 이상적으로 다루며 권위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자녀가 가치관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가능한 스스로 규제할 수 있게 한다.<sup>11)</sup> 자녀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으며 외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복종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sup>12)</sup> 그러므로 허용적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도덕적 표준을 따라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되기 쉽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아주 강하므로 상호의존도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음주와 약물복용에 빠지거나, 성적으로 난잡하게

9) M. S. Tisak,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Feb. 1986): 166-176.

10) 전요섭, 「신학에서 본 심리학」(서울: 잠언, 1999), 242-243.

11) Jerry J. Bigner,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ew York: McMillan, 1979), 43-44.

12) D. Baumrind,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Aug. 1966): 889.

나 질병에 걸리기가 더 쉽고, 자기의 자기 가치감을 손상시키며, 불완전감을 만들어 낸다.<sup>13)</sup>

## (2) 독재적 권위

독재적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강력한 통제를 하지만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만 충분한 지지와 사랑은 제공하지 않는다. 독재적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며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때로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자녀에게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 규범을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모의 말은 곧 법이며, 부모의 행위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도록 한다.<sup>14)</sup>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 쉬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정이나 개방의식 또는 친밀감이 없고 높은 감정적 지원도 없다. 따라서 독재적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하고 타인에 대해서 편견을 나타내며, 또한 반사회적 성향과 전통적인 도덕 기준의 배척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결여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sup>15)</sup> 독재적 부모는 자녀에게 두려움, 적개심, 분노, 반항심을 쌓이게 한다.<sup>16)</sup> 이처럼 독재적 부모는 자녀의 자아정체성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녀의 정서적 성숙과 성격발달을 왜곡시키거나 저지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받은 상처는 자녀의 대인관계에 제동을 걸게 만들어, 자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처럼 자기를 대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자녀는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죄의식에 휩싸인다.<sup>17)</sup>

## (3) 신뢰적 권위

진정한 권위를 가진 부모는 실력과 자신감을 지닌 부모이다.<sup>18)</sup> 신뢰적 부모는 자녀를 합리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 즉 대화를 통해

13) Bruce Litchfield, Nellie Litchfield, *Christian Counselling and Family Therapy*-vol. 3, 정동섭, 정성준 공역, 「기독교상담과 가족치료」(서울: 예수전도단, 2002), 57.

14) Bigner, 43.

15) Josh McDowell, *The Father Connection*, 안효선 역, 「좋은 아버지」(서울: 에스라서원, 1998), 179.

16) 호대석, 황정혜, 「칭지기훈련을 위한 부모교육」(서울: 쿤란, 1999), 37.

17) Millard J. Sall, *Faith, Psychology and Christian Maturity*, 김양순 역,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32-33.

18) 김유숙, “바람직한 부모,”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상담과 치유」 제30호(2004, 여름): 7.

자녀의 행위를 고무시키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며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고 기준을 확고히 설명해 준다.<sup>19)</sup> 또한 자녀에게 언어적인 칭찬을 자주 하는 등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융통성 있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녀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자녀의 정서적 양육도 병행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를 인정하며 필요할 때는 힘도 사용한다. 신뢰적 권위유형은 권장되는 자녀 양육 방식으로, 통제와 지원을 적절히 잘하므로 자녀에게 자기 가치감과 안전감, 책임감을 길러 주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뢰적 권위유형으로 양육 받고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가치관을 동일시하고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잘 지냈으며,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뢰적 권위유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많은 연구의 결과를 확고히 해준다.

## 2. 자아존중감

###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William James는 1890년도에 그의 책 「심리학의 원리」에서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예상했던 요구에 대한 현실적 실천의 비율, 즉 자기존중감= 성공/ 욕구”로 규정하고 있다.<sup>22)</sup> 그 후 James의 이론을 현실적으로 설명한 S.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주요 기준을 네 가지, 즉 중요도(significance), 능력(competence), 미덕(virtue), 영향력(power)을 언급하면서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유지하는 평가 또는 가치판단으로 규정하였다.<sup>23)</sup>

그리고 M.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19) Balswick, Balswick, 131.

20) Ross Campbell, *Kids Who Follow, Kid's Who Don't*, 허영자 역,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려면」(서울: 파이디온선교회, 1993), 115-116.

21) 송인섭, 「인간의 심리와 자아개념」(서울: 학지사, 1989), 51.

22) Nathaniel Branden,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 「나를 존중하는 삶」(서울: 학지사, 1994), 18.

23) Stanley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1967), 5.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Nathaniel Brenden은 완전하게 실현된 심리적 경험으로서, 개인적 능력에 대한 감각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개인적 가치에 대한 감각인 자기존경감(self-respect)의 두 측면이 통합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24)</sup> Abraham Maslow는 자아존중감을 내적 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고, 온전한 자아존중감을 모든 고차원적 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sup>25)</sup> 이러한 정의는 자아존중감을 자기평가(self-evaluation)의 개념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며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나 권리, 능력, 인격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Neil T. Anderson은 자아존중감이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 또는 지식이나 외모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정당한 자아존중감이 생긴다고 하였다.<sup>26)</sup> David A. Seamands도 자아존중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인격으로 자신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sup>27)</sup> 그리고 Gary R. Collins 역시 자아존중감을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 능력, 중요성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로 정의하면서, 인간을 지적인 능력,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악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책임감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였다.<sup>28)</sup> David E. Carlson은 자아존중감을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29)</sup>

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존재의식과 그

24) Nathaniel Branden,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Bantam, 1994), 26.

25) Joanna McGrath, Alister McGrath, *Self-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윤종석 역, 「자존감」(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3), 29-30.

26) Neil T. Anderson, *Victory over The Darkness*, 유화자 역,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서울: 조이선교회, 1999), 38.

27) David A. Seamands, *Healing Grace*, 윤종석 역, 「치유하시는 은혜」(서울: 두란노, 1990), 18, 162.

28)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피현희, 이해련 공역, 「크리스찬 카운슬링」(서울: 두란노, 1988), 486-487.

29) David E. Carlson,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자존감」(서울: 두란노, 1995), 22.

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믿음을 통해 맺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온전한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은 충분한 인간이해의 자료와 상담 방법들을 가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내담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2)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청소년기는 유아기나 아동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제 2의 기회’이므로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청년기의 제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기대하는 바를 통합하여 새롭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30)</sup>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의존적 시기에서부터 자립적인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양적, 질적으로 나타난다.<sup>31)</sup>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적응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sup>32)</sup> 또한 심리학적으로는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새로운 행동을 개발하고 적응해야 하는 위기로 가득 찬 시기이므로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한 긴장 속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와 달리 정체감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sup>33)</sup> 따라서 부모, 교사, 동료와 같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평가한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반대로 열등하게 평가한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게 된다.<sup>34)</sup> 이처럼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점은 일치되고, 정당하고, 일관성 있게 강요되는 교육에서 보여주는 부모간의 연합과 새로운 관계이다.<sup>35)</sup>

30) 연문희, 「청소년 이해와 지도」(서울: 장학사, 1986), 25-26.

31)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청소년 심리학」(서울: 양서원, 1997), 19.

32) Donald E. Capps,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 문희경 역,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서울: 이레서원, 2001), 26.

33) 이성호, 「흔들리는 부모 반항하는 아이들」(서울: 조선일보사, 1997), 217.

34) Rice, 131-132.

35) Jay E. Adams,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한준수 역,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서울:

그러므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생 전체가 크게 달라진다.<sup>36)</sup> Rosenberg도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줌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친밀 정도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 하였고, Coopersmith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존중과 수용 및 관심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의 요소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 허용적 처벌, 신뢰적 훈련을 강조하였다.<sup>37)</sup>

그러므로 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청소년은 술선해서 행동하고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위험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청소년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우울증과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sup>38)</sup>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격장애를 겪을 수 있으므로 낮은 자아존중감의 청소년들의 삶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문제투성이며, 대개 깊은 불만을 느낀다.<sup>39)</sup> 낮은 자아존중감에 수반될 수 있는 부정적 감정 중 하나가 죄책감 또는 자기 비난이다. 극단적인 경우 인간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볼 수 있다.<sup>40)</sup> 낮은 자아존중감은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으며, 열등감과 긴장, 불신과 오해로 얼룩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할 경우 자기 비하와 열등감으로 빠져서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와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생명의 말씀사, 1997), 132.

36) 나삼진, 「NG를 잡아라」(서울: 영문, 1999), 61.

37) Coopersmith, 16.

38)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서울: 박영사, 1987), 216.

39) McGrath, McGrath, 63-64.

40) McGrath, McGrath, 59.

### 3. 성경적 부모권위와 자아존중감

#### 1) 성경적 부모권위

기독교 가정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성경은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훈련시킴으로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sup>41)</sup>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정 내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방법으로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율법과 계명을 제시해 주셨다.<sup>42)</sup>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결국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 즉 언어적·비언어적 태도, 사고 체계, 행동 양식, 의사 표현 등 일체가 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나,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외에도 부모의 신앙의 성숙도나 신앙형태 및 정서적 안정도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 가정처럼 부모의 영향도 받지만, 부모-자녀 간 관계 외에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열악한 환경이나 역경, 갈등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뛰어 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sup>43)</sup>

성경에서 부모의 직무는 왕적 직무, 선지자적 직무, 제사장적 직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부모는 왕적 권위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엡 6:4), 선지자적 직무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44)</sup> 뿐만 아니라 부모는 상담자의 역할, 삶의 지도자적 역할을 해야 하고, 자녀를 언어적 방법,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의 정서적 안녕, 성취감, 대인관계, 자기절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의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가정에 적절하고 확고한 한계선을 놓고 굳건하게 교육시키는 아버지와의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느끼는 정서를 가지고

41) George A. Rekers, *Counseling Families*, 오성춘 역, 「가정상담」(서울: 두란노, 2002), 33.

42) 김미경, 「기독교 가정교육」(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9), 15-16.

43) Balswick, Balswick, 137.

44)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서울: 베다니, 1994), 240-242.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므로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의 영적 생활에 도움을 준다.<sup>45)</sup>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셔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적으로 권위를 아버지에게 위임하셨다.<sup>46)</sup> 그러나 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지녔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고귀한 사명을 저버린 채, 직장 생활에만 열중하게 되어 자녀들의 영적 발달과 자아존중감 형성을 등한시한다.<sup>47)</sup>

성경은 자주 부모를 자녀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인 모범자로 묘사한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이라는 틀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양육 방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즉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단지 부모의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윤리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배운다(엡 6:1).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중요성을 확립하는 길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sup>48)</sup> 즉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신 6:6-7), 또한 자녀를 훈련시키고(잠 22:6),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 받도록 할 때(엡 6:4) 영적 발달에 있어 빠르게 인도된다.<sup>49)</sup> 그러므로 부모는 행동을 수반한 사랑의 언어적 표현, 그리고 격려와 인정함으로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를 만큼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어야만 한다.

45) Dave Simmons, *Dad The Family Counselor*, 김혜경 역, 「가정의 상담자 아버지」(서울: 순출판사, 1994), 137-147.

46) 김인자, 「부모들이여, 자녀를 잘 양육합시다」(서울: 나침반사, 1991), 55.

47)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91), 250.

48) Lawrence Crabb,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 개론」(서울: 아가페, 2003), 133.

49) Meier, Minirth, Wichern, Ratcliff, 250.

바울은 위압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규칙과 통일되지 못한 권위와, 과잉 교육으로 인해 자녀들이 자기 증오를 일으키거나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고(엡 6:4), 자녀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골 3:21),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혹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훈계를 경계하고 있다.<sup>50)</sup>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내면의 삶을 비롯하여 개인의 가치와 삶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부모 역할은 자녀에게 자아존중감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sup>51)</sup> 이처럼 훌륭한 부모 역할은 자녀의 건강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자녀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있어서 먼저 부모 자신의 정체감,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기수용에서 안정감을 가질 때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세워지도록 도울 수 있다.<sup>52)</sup>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성경적인 목적을 위해 이행되며 자비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양육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up>53)</sup> 그런데 기독교 신자 부모들 가운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모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채 자녀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겨버린 결과 청소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부모의 공통된 심정은 죄책과 부끄러움, 자녀의 장래에 대한 우려와 분노 등의 복합감정이 나타난다. 부모들은 문제를 가진 청소년 자녀들을 보면서 그 문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자녀들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여, 자녀를 바로 키우지 못한 죄책감과 문제 자녀의 부모라는 수치심이 부모들의 심정 속에 넓게 자리 잡는다. 또한 분노하며, 반항하여, 부모의 말씀을 비판하고 자기의 세계 속으로 칩거하여 대화를 단절시키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50) Adams, 128-134.

51) Charles M. Sell,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가정사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399.

52) Litchfield, Litchfield, 64.

53) Dorothy Corkille Briggs, *Your Child's Self-Esteem: The Key to Life*, 편역자, 이형득 공역, 「후회 없는 아버지의 길: 부모가 심어주는 자기존중감」(서울: 형설출판사, 1991), 21.

이러한 심리상태에 빠져 고민하는 청소년과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부모들을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부모들도 청소년 자녀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격려해야 한다. 또 상담자는 청소년들의 공간과 제한을 부모들이 재설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sup>54)</sup>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의 상담은 당황, 실망, 대인관계의 긴장, 분노, 자존심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죄책감 등으로 상처입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과 아울러 청소년 부모의 상담을 병행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과 부모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회학교와 기독교상담, 세미나, 관련서적, 부모지원 그룹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 2) 성경적 자존감의 개념과 발달

그리스도인의 자아존중감은 민족적 특권, 가문의 이름, 개인의 성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을 위해 해주신 일에만 있다. 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은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성취하시는 것이다.<sup>55)</sup>

성경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와, 구속에 대한 교리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기독교의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타락한 인류라는 이중적인 사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sup>56)</sup> 비록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친히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인간에게는 아직도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아 개념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에 초점을 둔다.<sup>57)</sup>

54) 조영길, 「성경을 통한 청소년상담」(서울: 성광문화사, 1999), 41.

55) McGrath, McGrath, 161.

56) John Carter, Bruce Narramore, *The Inter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전요섭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서울: 하늘사다리, 1997), 70.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부정이 우선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확신과 용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자아존중이 필요하게 된다.<sup>58)</sup> 즉 그리스도인은 Jay E. Adams가 지적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기 발견은 죄성으로 가득 찬 자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자아존중감이란 하나님의 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죄의 본성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외모와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가치 있는 존재이며, 구속의 피 값으로 건짐 받은 구속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에 존귀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적인 자아존중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심리학의 인간이해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성경적 자아존중감의 근거는 인간 본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된 값진 존재에 대한 평가로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인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가치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그분 안에서 갖게 된 절대적인 가치감으로 평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자아존중감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뚜렷한 기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죄 용서를 경험하므로 만들어진다.

### III. 연구방법 및 결과

####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4년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원, 안양, 과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9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66부를 제외한

57)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정정숙 역, 「상담학 개론」(서울: 베다니, 1994), 240.

58) 전요섭, 245.

총 934부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고, 남학생이 463명, 여학생 43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성결대학교 전자계산소에 의뢰하여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1.0을 이용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유의도 수준은  $p < .05$ 이다.

## 2. 연구도구

1991년 John R. Buri가 개발한 부모권위설문지(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PAQ)와 1985년 Bruce R. Hare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Hare Self-Esteem Scale: HSS)를 각각 2004년 성결대학교 전요섭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 후 설문 문항구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Q는 1971년 D. Baumrind의 부모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만든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허용적(permissive), 독재적(authoritarian), 신뢰적(authoritative)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모두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아버지의 허용적 권위 .7374, 독재적 권위 .7953, 신뢰적 권위 .8841이고 어머니의 경우 허용적 권위 .7044, 독재적 권위 .8140, 신뢰적 권위 .8530이었다.

HSS는 또래적 자아존중감(peer self-esteem), 가정적 자아존중감(home self-esteem), 학교적 자아존중감(school self-esteem)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는 각각 10문항 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94$ 이며 또래적 .7680, 가정적 .8038, 학교적 .7262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PAQ와 HSS는 Likert 타입의 측정도구로 문항이 제시하는 반응을 취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자주 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 3. 연구결과

### 1) 아버지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wo-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 <표 6>과 같다.

<표 1> 부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및 표준편차

부신앙	부 권위유형	N	M	SD
기독교	허용적	85	101.2195	14.43522
	독재적	105	93.8966	13.75052
	신뢰적	221	108.8500	11.64334
	전체	411	103.9121	14.12506
비기독교	허용적	124	99.0119	13.97259
	독재적	147	95.5619	15.53831
	신뢰적	252	105.8048	13.45075
	전체	523	101.3036	14.86214
합계	허용적	209	99.4450	14.05682
	독재적	252	95.1786	15.13537
	신뢰적	473	106.7061	13.00457
	전체	934	101.9711	14.71371

<표 2> 부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204.663	1	204.663	1.072	.301
부권위유형	20664.608	2	10332.304	54.103	.000
기독교신앙 * 부권위유형	692.523	2	346.261	1.813	.164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과 권위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권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4>부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가정 자아존중감 차이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4.877	1	4.877	.138	.710
부권위유형	5128.419	2	2564.210	72.545	.000
기독교신앙 * 부권위유형	214.432	2	107.216	3.033	.049

<표 3> 부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부신앙	부 권위유형	N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학교자존감	
			M	SD	M	SD	M	SD
기독교	허용적	41	37.1951	5.83618	33.6098	6.34381	30.4146	5.24869
	독재적	58	32.7414	5.61502	32.3966	6.82344	28.7586	5.97160
	신뢰적	140	40.4571	4.60430	35.1500	5.38440	33.2429	5.40167
	전체	239	38.0251	6.00485	34.2176	6.01912	31.6695	5.83127
비기독교	허용적	168	36.5536	6.06626	32.6786	5.75583	29.7798	5.91297
	독재적	194	34.1031	6.38892	31.8918	6.25235	29.5670	6.20531
	신뢰적	333	39.1832	6.17804	34.6456	5.31257	32.0390	5.41264
	전체	695	37.1295	6.56736	33.4014	5.81821	30.8029	5.87796
합계	허용적	209	36.6794	6.01342	32.8612	5.87161	29.9043	5.78214
	독재적	252	33.7897	6.23505	32.0079	6.37787	29.3810	6.14999
	신뢰적	473	39.5603	5.78179	34.7949	5.33320	32.3953	5.43160
	전체	934	37.3587	6.43684	33.6103	5.87783	31.0246	5.87512

<표 5> 부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또래 자아존중감 차이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59.870	1	59.870	1.807	.179
부권위유형	1017.921	2	508.961	15.364	.000
기독교신앙 * 부권위유형	4.878	2	2.439	.074	.929

<표 6> 부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학교 자아존중감 차이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16.880	1	16.880	.519	.471
부권위유형	1715.225	2	857.613	26.364	.000
기독교신앙 * 부권위유형	124.515	2	62.258	62.258	.148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과 권위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에 나타났는데, <표 3>에서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결과는 기독교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알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표 5>와 <표 6>에서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과 권위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또래, 학교 자아존중감에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표 3>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또래, 학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wo-way ANOVA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 ~ <표 12>와 같다.

<표 7> 모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및 표준편차

모신앙	모 권위유형	N	M	SD
기독교	허용적	57	98.9825	14.82215
	독재적	68	96.9559	15.72756
	신뢰적	226	106.0619	13.05597
	전체	351	103.1481	14.41669
비기독교	허용적	106	96.5472	14.54656
	독재적	108	94.3056	15.92591
	신뢰적	369	104.6531	13.52148
	전체	583	101.2624	14.85698
합계	허용적	163	97.3988	14.64415
	독재적	176	95.3295	15.85738
	신뢰적	595	105.1882	13.35307
	전체	934	101.9711	14.71371

<표 8> 모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726.230	1	726.230	3.665	.056
모권위유형	15708.845	2	7854.423	39.642	.000
기독교신앙 * 모권위유형	66.497	2	33.248	.168	.846

<표 9> 모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모 신앙	모 권위 유형	N	가정 자존감		또래 자존감		학교 자존감	
			M	SD	M	SD	M	SD
기독교	허용적	57	35.9649	6.17589	33.1930	5.67085	29.8246	6.10949
	독재적	68	33.6471	6.64172	33.2500	6.91392	30.0588	6.10818
	신뢰적	226	39.4159	5.28852	34.3009	5.78256	32.3451	5.52291
	전체	351	37.7379	6.17319	33.9174	6.00490	31.4929	5.83480
비기독교	허용적	106	35.1887	6.05862	32.1698	6.15432	29.3868	6.34346
	독재적	108	33.4074	7.12772	31.8426	5.86955	29.0556	6.11392
	신뢰적	369	38.7778	5.95494	34.2493	5.51900	31.6260	5.50454
	전체	583	37.1304	6.58517	33.4254	5.79734	30.7427	5.88629
합계	허용적	163	35.4601	6.09214	32.5276	5.99209	29.5399	6.24722
	독재적	176	33.5000	6.92573	32.3864	6.31177	29.4432	6.11389
	신뢰적	595	39.0202	5.71485	34.2680	5.61578	31.8992	5.51795
	전체	934	37.3587	6.43684	33.6103	5.87783	31.0246	5.87512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권위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과 권위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권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0> 모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가정 자아존중감 차이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47.106	1	47.106	1.296	.255
모권위유형	4609.085	2	2304.543	63.414	.000
기독교신앙 * 모권위유형	6.728	2	3.364	.093	.912

<표 11> 모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또래 자아존중감 차이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106.082	1	106.082	3.135	.077
모권위유형	560.913	2	280.457	8.289	.000
기독교신앙 * 모권위유형	72.546	2	36.273	1.072	.343

<표 12> 모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른 학교 자아존중감의 차이

	SS	df	MS	F	p
기독교신앙	80.345	1	80.345	2.419	.120
모권위유형	1167.700	2	583.850	17.575	.000
기독교신앙 * 모권위유형	6.294	2	3.147	.095	.910

<표 10> ~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권위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권위유형과 기독교 신앙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가정, 또래, 학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신앙과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분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기독교 신앙유무와 권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과 부모의 기독교상담에서 바람직한 부모 권위유형과 기독교 신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검증을 통해 얻어진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권위유형을 신뢰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허용적 혹은 독재적 권위유형으로 지각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았다. 또한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가정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권위유형을 신뢰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허용적 혹은 독재적 권위유형으로 지각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았다. 그리고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

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 중 특히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낸다. 특히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성경과 설교와 교육을 통해 비기독교인 아버지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 도구는 외국의 도구를 번안한 것으로 부모권위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부모 권위 검사지의 경우 한국의 문화적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고, 특히 중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과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기독교상담에서 부모권위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내담자의 신앙의 수준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신뢰 있는 측정치를 얻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권위유형과의 관계만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간과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영향도 중요하리라 보여 진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부모 권위유형 지각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연구의 결과 부모의 기독교 신앙 중 특히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외형적 형식과 수단보다는 내면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내적인 신앙의 성숙도나 신앙요소에 따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모 중 특히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과 신뢰적 권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어진 신적인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워지며,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자신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함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경적인 권위로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독교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신뢰적인 양육방식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자신이 지각하는 개별성과 관계성을 돌아보고 통찰하여 보다 신뢰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미경.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9.  
김성은 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94.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87.  
나삼진. 「NG를 잡아라」. 서울: 영문. 1999.  
석종철. 「통계로 본 청소년문제와 상담」. 서울: 한글. 1999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4.  
송인섭. 「인간의 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학지사. 1989.  
오인택 외 12인 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이성호. 「흔들리는 부모 반항하는 아이들」. 서울: 조선일보사. 1997.  
장휘숙.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0.  
전요섭. 「신학에서 본 심리학」. 서울: 잠언. 1999.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1994.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1997.
- 호태석, 황정혜. 「청지기훈련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쿰란. 1999.
- 김경희. “부모권위척도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아동복지학과. 「아동 연구」. 제6권 (1991).
- \_\_\_\_\_. “아동의 부모권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제11권 (1990).
- 김유숙. “바람직한 부모”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상담과 치유」. 제30호 (2004).
- 김재희, 주은선.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 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관계.”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발달」. 제14권 (2002).
- 김지현. “한국 선교사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부모의 역할.”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 교육연구」. 제12권 (2001).
- 김하연, 오경아, 윤진.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동조 및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4집 (1991).
- 도현심, 최미경.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제19권 (1998).
- 박경리, 김경연.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단짝 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제22권 (2001).
- 이은희, 최태상, 서미정.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자원의 효과.”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2000).
- 장혜자, 정영숙. “초·중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 지」. 제8권 (1999).
- 정정숙. “기독교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상담과 선교」. 제4권 (1994).
- 최관경.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부산교육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제21집 (2001).
- 추부길. “가정에서의 권력, 권력인가? 권위인가?” 한국가정사역연구소. 「가정과 상담」. 통권62호 (2003).
- 홍인중. “낮은 자존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제292호 (2001)
- ‘A Kempis, Thomas. *Imitation of Christ*. 박명곤 역.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0.
- Adams, Jay E.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정정숙 역. 「상담학 개론」. 서울: 베다니. 1994.
- \_\_\_\_\_.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한준수 역.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Anderson, Neil T. *Victory over The Darkness*. 유화자 역.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서울: 조이선교회. 1999.
- Balswick, Jack O., Balswick, Judith K. *The Family*. 황성철 역. 「크리스찬가정」. 서울: 두란노. 2003.
- Branden, Nathaniel.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1994.
- Briggs, Dorothy Corkille. *Your Child's Self-Esteem: The Key to Life*. 편영자, 이형득 공역. 「후회 없는 아버지의 길: 부모가 심어주는 자기존중감」. 서울: 형설출판사. 1991.
- Brownback, Paul. *The Danger of Self-Love*. 유미영 역. 「자기사랑은 성경적인가」.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0.
- Campbell, Ross. *Kids Who Follow, Kid's Who Don't*. 허영자 역.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서울: 파이디온선교회, 1993.
- Capps, Donald. E.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 문희경 역.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
- Carlson, David E.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자존감」. 서울: 두란노. 1995.
- Carter, John & Narramore, Bruc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전요섭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서울: 하늘사다리. 1997.
- Clark, Robert, Zuck, Roy & Brubaker, Joanne.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신청기 역. 「교회의 아동교육」.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피현희, 이혜련 공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1988.
- Crabb, Lawrence.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역.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 2003.
-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윤진, 김인경 공역.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9.
- Litchfield, Bruce & Litchfield, Nellie. *Christian Counselling And Family Therapy-vol.3*. 정동섭, 정성준 공역.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McDowell, Josh & Hostetler, Bob.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 상담 핸드북」. 서울: 한국장로출판사. 2000.
- McDowell, Josh. *The Father Connection*. 안효선 역. 「좋은 아버지」. 서울: 에스라 서원. 1998.
- McGrath, Joanna & McGrath, Alister. *Self-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윤종석 역. 「자존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3.
- Newman, Barbara. M., Newman, Philip. R.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logical*

- Approach*. 박아청 역. 「현대발달심리학: 평생발달의 심리」. 서울: 형설출판사. 1991.
- Rekers, George A. *Counseling Families*. 오성춘 역. 「가정상담」. 서울: 두란노. 2002.
- Rice, F. Philip.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편역.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 Sdhaefffer, Edith. *What Is A Family?* 양은순 역. 「가정이란 무엇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Seamands, David A. *Healing Grace*. 윤종석 역. 「치유하시는 은혜」. 서울: 두란노. 1990.
- \_\_\_\_\_.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송헌복 역.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 1986.
- Sell, Charles M. *Family Ministry*. 정동석 역.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Simmons, Dave. *Dad The Family Counselor*. 김혜경 역. 「가정의 상담자 아버지」. 서울: 순출판사, 1994.
- Wright, H. Norman. *Crisis Counseling*. 전요섭, 황동현 공역. 「위기상담학」. 서울: 쿰란출판사. 1998.
- Bigner, Jerry J.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ew York: McMillan. 1979.
- Branden, Nathaniel.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Bantam. 1994.
- Coopersmith, Stanley.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1967.
- Hamner, Tommie J., Turner, Pauline H.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Needham, MA: Allyn & Bacon. 2001.
- Meier, Paul D. Minirth, Frank B. Wichern, Frank B. Ratcliff, Donald E.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1991.
- Bachman, J. G., O'Malley, P. M. "Self-Esteem in Youngmen: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 35 (1977).
- Baumrind, D.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No 37 (1966).
- Tisak, M. S.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No 57 (1986).

Abstract

Adolescence's Self-Esteem and Parental Authority  
-in focus on the Christian Faith-

Joseph Jeon(Ph.D.) & Jinyoung Lee(M.A.)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ce's self-esteem and parental authority. The groups observed in this study were 934 students from 9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uwon, Anyang, Gwachon as well as Seoul. In this study are amended questionnaires of PAQ and HSS based on the preliminary inquiry on a child with authentic confidence. PAQ was deployed by John R. Buri in 1991 and HSS was deployed by Bruce R. Hare in 1985. Both of them were adapted by Joseph Jeon in 2004. Statistics are compiled from the collected data based on two-way ANOVA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1.0 at Sungkyul University.

The below are Conclusions: Firstly, a Adolescence's self-esteem is highly subject to his/her Parental authority. Those perceiving their parents' authority in a authoritative way posted the highest marks in terms of a Adolescence's self-esteem. On the other hand, those understanding their parental authority in an authoritarian way made lowest marks. Second, Christian fathers showed higher level of respect for his child's self-esteem at home. Lastly, there is no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mathers' Christian Faith and a Adolescence's self-esteem at home upon parental authority. In conclusion, parents' Christian Faith (especially fathers') is functioning as a key factor in forming their child's sound self-esteem. And further on, Christian counseling and parental education program within church can substantially help solve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children are undergoing.

Key words: self-esteem, Christian Faith, parental authority, Adolescence, Christian counseling